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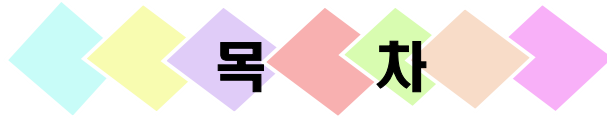
미국 정부구조 및 조세제도 등 고찰

과 정 : 국제공공정책 및 관리
과정 (University of
Kentucky)

소 속 :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직 급 : 지방행정5급

성 명 : 김 원 태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및 과정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미국의 정부구조 및 정부간 권한 체계	8
제1절 미국의 정부구조	8
1. 연방정부	8
2. 주정부	9
3. 지방정부	9
제2절 미국 정부간 권한 배분	10
제3장 미국의 조세정책 및 켄터키주 재정상황 분석	21
제1절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세정책 비교	12
1. 우리나라 조세제도	12
2. 미국의 조세제도	14
3. 미국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	15
4. 미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 차이점	16
제2절 켄터키주 재정수입·지출 분석	17
1. 켄터키주 재정수입 분석	17
2. 켄터키주 재정지출 및 부채 분석	21

제4장 켄터키주 인문·자연환경과 사회·경제통계 분석	42
제1절 켄터키주 인문 및 자연환경	24
제2절 켄터키주 경제·사회 통계	25
1. 경제 통계	25
2. 사회 통계	32
제5장 기타 참고 정책	8
제1절 켄터키주의 최근 외국계 제조업 유치 활동 및 실적	38
제2절 켄터키주와 인접 조지아주의 코로나 대응 정책	38
제3절 켄터키주내에서 일본과 중국의 대외활동	39
제6장 결 론	40

표 목 차

<표 1> 미국 연방협법 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5
<표 2> 우리나라 조세체계	6
<표 3> 지방세의 세목	7
<표 4> 미국의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수입현황	0
<표 5> 켄터키주 세목별 일반 기금 수입	1
<표 6> 켄터키주 총세수 및 개인 소득 증가율 비교	2
<표 7> '20년도 월별 켄터키주 일반 기금 세수 추이	3
<표 8> 연방정부 전입금	4
<표 9> 세목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 규모	5
<표 10> 항목별 재정지출 현황	6
<표 11>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	7
<표 12> 빈곤율 그래프 추이	0
<표 13> 고용율 추이	1
<표 14> 중산층 가계소득 추이	2
<표 15>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추이	3
<표 16> 미국 주택소유비율 추이	4
<표 17> 우리나라 주택소유비율 추이	4
<표 18> 켄터키주 에너지 소비 추이	5
<표 19> 미국 화력발전 에너지원(석탄·천연가스) 변동추이	62
<표 20> 농촌거주인구 추이	7
<표 21> 고등학교 졸업생 학위성취도 수준	8
<표 22> 대학교 학사 이상 취득자 비율	8
<표 23> 범죄율 현황	9
<표 24> 광대역 인터넷 설치율	0
<표 25> 켄터키주 벤처투자 추이	B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과정

미국 켄터키대학(University of Kentucky)에서 공공행정분야(IPPMI :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nstitute)인 비학위 연수과정에서 살펴본 미국 정부구조 및 권한 배분 및 재정구조, 특히 켄터키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행정을 비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켄터키대학의 경우 해외연수생에 대하여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2년 과정이며 비학위 과정은 1년 과정으로서 어학연수(ESL)와 인턴십 연수가 주된 활동이며, 학위과정은 말 그대로 석사논문 작성을 통한 학위취득 과정이다.

2021년도 상반기 수업은 COVID-19 확산으로 모든 과정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백신접종률이 상승하면서 하반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방문 거부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인턴십 연수가 불가능하여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담당자로부터 정책설명을 듣거나 일시 방문허가를 얻은 기관에 한하여 직접방문함으로써 담당자로부터 정책설명을 청취할 수 있었다.

추가로 대학에서는 미국 역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교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연수생들의 인턴십 연수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미국의 정부구조를 조사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체계를 알아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과 관련한 각종 연구논문, 켄터키 주정부의 공식자료 등 다양한 현지 자료를 토대로 미국 정부구조 및 조세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헌조사를 함께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및 조세체계 등을 비교함으로써 개정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외국에 대한 사례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 미국의 정부구조 및 정부간 권한 체계

제1절 미국의 정부구조

미국은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개 층으로 구성된 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정부구조와 유사하다 하겠다.

미국의 지방행정은 수정헌법 제1조 제10절 2항 및 3항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동일한 형태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주정부의 연방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주정부의 인구 규모,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행정·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1.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분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권한은 미국 헌법에 의해 각각 연방 의회, 대통령 및 연방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행정부는 법률사무 집행을 담당하고, 입법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법안제출 및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며, 사법부는 최고법률기구로서 연방법을 해석하고 사법심사권(위헌법률심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에는 일반 복지 증진, 교육, 군사 등 다양한 책임을 맡은 수백 개의 연방 기관과 위원회가 있다.

2. 주정부

수정헌법 10조에 따라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귀속된다.

모든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모델로 하며,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국 헌법은 모든 주가 "공화주의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3권 분립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에서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부지사, 법무장관, 국무장관, 감사와 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의 다른 지도자들도 직접 선출하고 있다.

50개 주에는 모두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주지사가 발의하거나 의원이 발의한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이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입법부는 또한 주의 예산을 승인하고 탄핵문서를 발의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상원만 있는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 입법부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원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고,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주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하급 주 법원의 항소를 심리하는 주 대법원이 이끌고 있다. 법원 구조 및 법관 임명/선거는 법률 또는 주 헌법에 의해 결정되며, 대법원은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으나, 주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3.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알래스카의 자치구와 루이지애나의 교구로 알려진 카운

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타운의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 헌법에 정의된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타운십, 빌리지, 자치구, 도시 또는 타운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시, 타운, 자치구(알래스카 제외), 촌락 및 타운십으로 정의된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인구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거주자부터 미네소타주 첸킨스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경찰 및 소방서, 주택 서비스, 응급 의료 서비스, 시 법원, 교통 서비스(대중 교통 포함) 및 공공 공사(거리, 하수도, 제설, 간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권력을 공유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2절 미국 정부간 권한 배분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에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 고유업무 이외 다른 모든 권한은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영토 내에 지방 정부를 설립하고 특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통화를 생산하고 세금을 규제하며 연방 복지 프로그램과 외교 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의 방위를 감독하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든다. 또한 연방 정부는 건강 보험, 도로 건설, 공항, 고속도로 시스템 및 오염 통제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주 정부는 주 경계 내의 업무를 감독하며, 소득세를 인상하고 의료보험(Medicaid)과 같은 주 복지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으며, 주 형법을 통제하고 주 도로를 유지하며 주 차원에서 연방법과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주 및 지방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주 헌법과 법률을 해석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협력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주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지방 정부는 특정 지역 내에서 주법을 시행하며, 시, 타운 및 카운티는 주에서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각 카운티, 타운 또는 시의 시민들은 그들을 통치할 대표자를 선출하며, 카운티에는 감독위원회가 있다. 타운이나 도시에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시장과 의회가 있다. 지방 정부의 책임에는 공원, 도서관, 학교, 경찰 및 소방 서비스와 같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관리하게 된다.

<표 1> 미국 연방헌법 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구분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
헌법에 의해 인정된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폐 외교 주간 통상 규제(통상조항) 조세부과, 징수 선전포고 군대양성, 지원 우체국 설치운영 주의 연방가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부과 및 징수 채무부담 법률제정 및 집행 법원설치 일반 사회복지 제공 은행 및 회사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州) 내 통상 규제 선거관리 공중보건, 안전, 도덕 증진 지방자치단체 설립 헌법수정 비준 주 방위군 설치
헌법에 의해 금지된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거래에 대한 관세 권리장전 침해 주 경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위나 귀족칭호 부여 노예제도 도입 투표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부과(수출입규정) 조폐 조약체결 계약의무의 손상 시민의 특권 및 면제권 침해 법률에 의한 적정절차와 동등한 보호의 위반 (적법절차규정, 평등규정)

출처: 외교부, 미국개황-미국 연방제도, 2009.6

제3장 미국의 조세정책 및 켄터키주 재정상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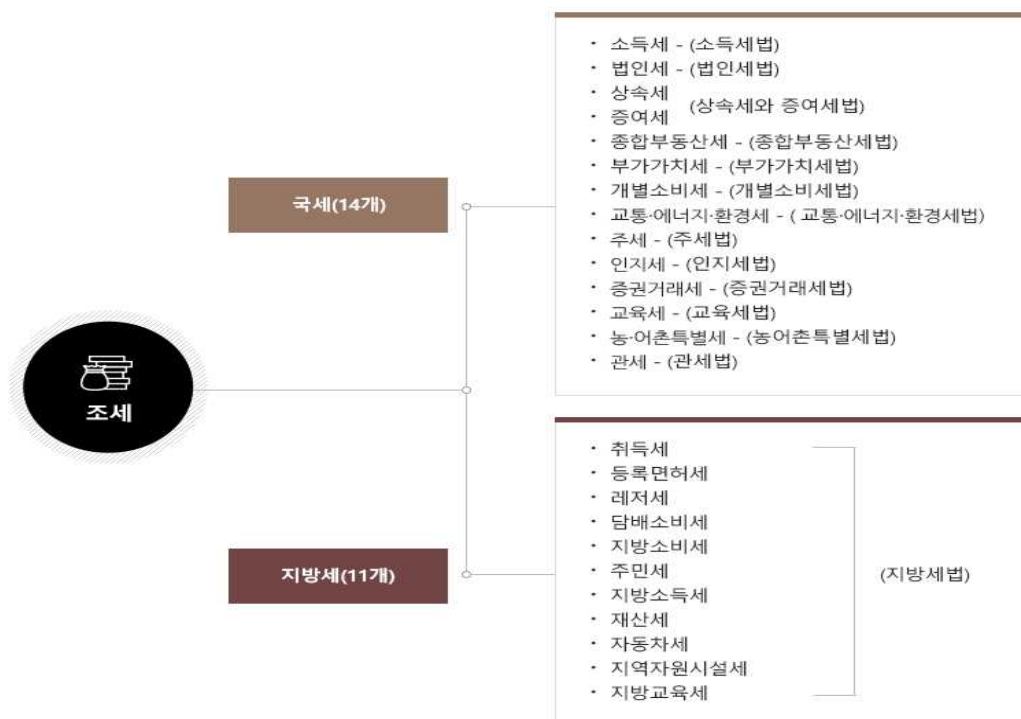
제1절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세정책 비교

1. 우리나라 조세제도

1-1. 조세분류 체계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근간이다.

<표 2> 우리나라 조세체계



출처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조세체계

1-2. 국세 개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며,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이고, 관세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국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부담자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되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농어촌특별세,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주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국세는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된다.

1-3. 지방세 개요

지방세는 과세주체, 사용용도,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과세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면 시·도세,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시·군·구세로 분류된다.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면 보통세, 특정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목적세로 분류된다.

<표 3> 지방세의 세목

특별 광역 시	시 세(9)	보통세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주민세* ④자동차세 ⑤지방소득세 ⑥지방소비세 ⑦담배소비세
		목적세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도	도 세(6)	보통세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지방소비세 ④레저세
		목적세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시군세(5)	보통세	①주민세 ②재산세 ③자동차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득세

지방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이 있다. 각 세목별로 분류되는 구성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이중 도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취득 이외(광업권, 어업권은 포함)의 재산권과 그박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소방사무·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2. 미국의 조세제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로 분류되는 소득(Personal Income Tax)·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판매세 & 사용세(Sales & Use Taxes), 상속세(Estate tax) 이외에도 특정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물품세(Excise Tax)로서 주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정부에서 모두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인 시군세의 재원으로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구분없이 모두 각각 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정부(County)의 경우 주로 재산세의 안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1. 소득(Individual Income Tax)·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미국의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에서 부과한다.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누진세율 세제를 도입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세율을 과세 소득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주로 개인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와 미국 시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관할 지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

수 또는 추정세 납부의 형태로 세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유형의 공제항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업 비용은 공제대상이며, 개인에게는 주택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2-2. 판매세 & 사용세(Sales & Use Taxes)

판매세(Sales Taxes)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관리 기관에 지불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로부터 판매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소비자가 직접 관리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세(Use Taxes)라고 한다. 판매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징수되는 부가가치세(VAT) 개념과 유사하다. 참고로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타나주, 뉴햄프셔주, 오레곤주에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3. 상속세(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제 후 잔여 금액이 \$5.49 백만달러를 초과 시 부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10.98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된다.

2-4. 물품세(Excise Tax)

물품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물품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소비세, 유류에 부과되는 소비세 등과 유사하며, 이외에도 항공기 티켓, 건강상품 및 의료서비스 등에 부과하고 있다.

3. 미국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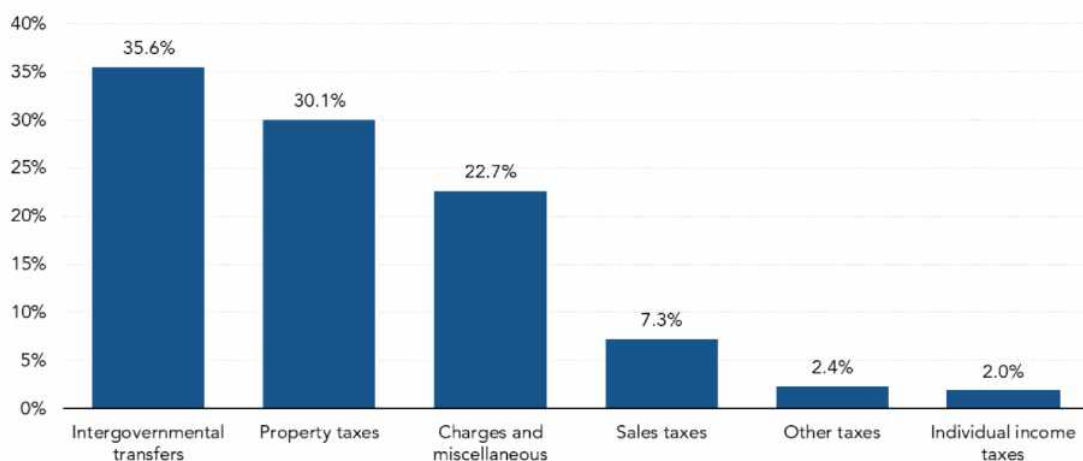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주(州)는 카운티(County)를 하위 행정기구로 두고, 그 아래

시(City)·읍(Town)·리(Village) 등으로 나뉘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일반적으로 주는 중앙정부로 주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카운티, 시, 타운 등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지방정부인 카운티의 경우 하위단위로서 시(City)·읍(Town)·리(Village) 등을 두고있어 형식상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있는 시·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할 또는 규모로 판단 시, 미국의 시(City)·읍(Town)·리(Village)의 경우 우리나라 기초자치체의 읍·면·동의 행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구조 상으로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전입금이 35.6%를 점유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비해 재산세 비중이 판매세나 소득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개념과 비슷하다 하겠다.

<표 4> 미국의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수입현황



Source: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State and Local Finance Initiative Data Query System"

4. 미국과 우리나라 조세제도 차이점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주체에 따라 국세는 소득·소비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 취득·보유관점에서 세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재정주체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관계없이 소득·법인세(Income

Tax), 부가가치세(Sales Tax), 상속세(Estate tax), 물품세(Excise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을 모두 과세하고 있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주정부 아래 지방정부의 경우 재산세 비중이 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가장 큰 세원으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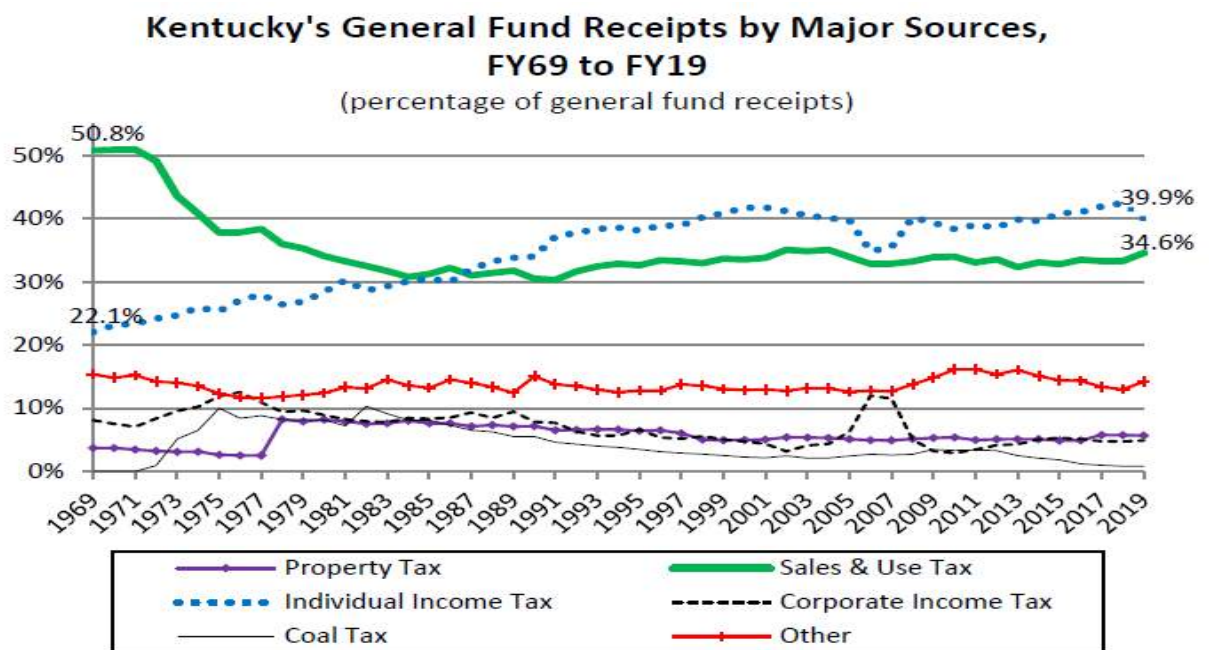
이를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조세구분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더 발전된 양상을 알 수 있다.

제2절 켄터키주 재정수입·지출 분석

1. 켄터키주 재정수입 분석

1-1. 켄터키주 재정수입 현황

<표 5> 켄터키주 세목별 일반 기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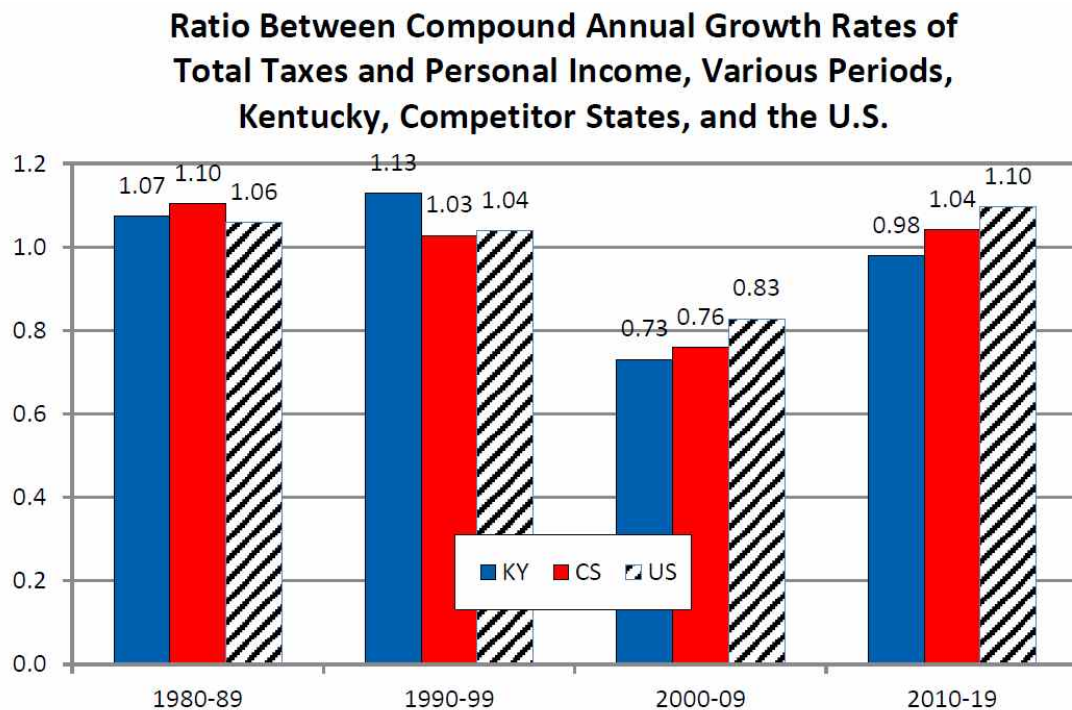
Sourc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data from the Kentucky Finance and Administration Cabinet, the Kentucky Revenue Cabinet, and the Office of the State Budget Director.

상기 <표 5>에서 켄터키주의 일반 기금 수입(General Fund Income)의 경우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판매세 & 사용세(Sales & Use Tax) 두 개 조세수입이 켄터키주의 일반 기금 수익의 74.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69년의 경우 판매세 & 사용세(Sales & Use Tax)가 약 51%,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판매세 비중은 34.6%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이 약 40%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의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켄터키주 총세수 및 개인 소득 증가율 비교



Source: U.S. Census Bureau,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State Government Tax Collections

Note: Total taxes are not adjusted for sales tax increases. Adjustments will produce slightly different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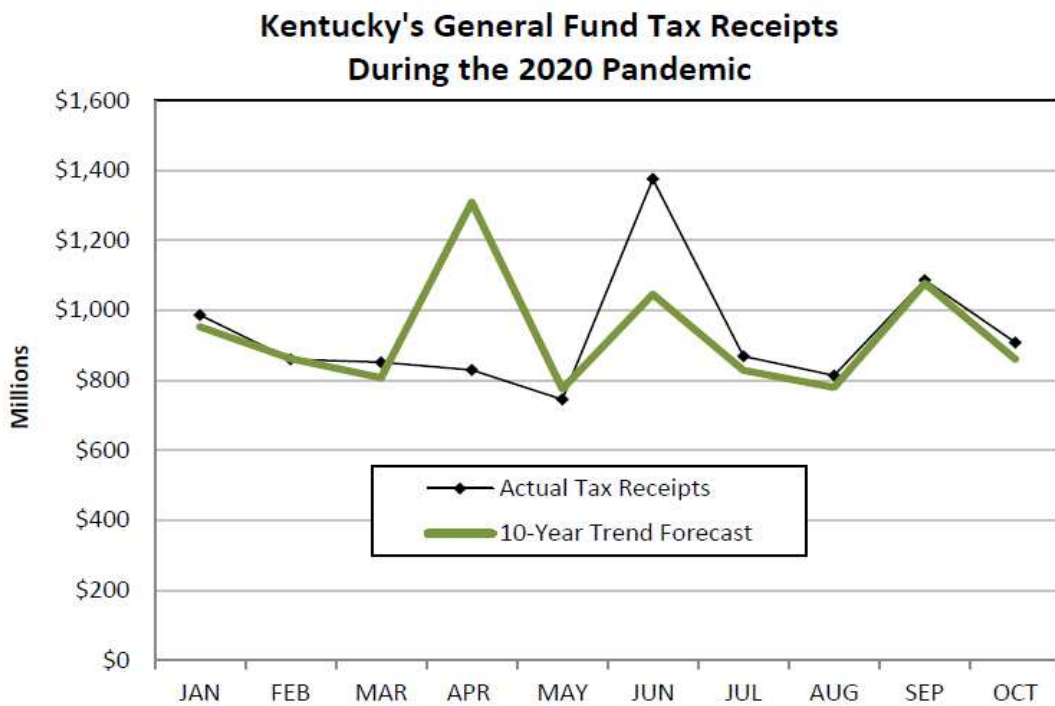
상기 <표 6>을 살펴보면 켄터키주를 비롯하여 모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 크게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위축으로 미국인들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개인소득세가 크게 감소하다가 2010년도 이후에 원상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발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야기한 부동산발 금융기관의 파산 등 경기후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결국 전 세계 경기를 후퇴시킨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파산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미국 전체적으로 경제가 크게 후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켄터키주를 비롯한 미국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20년도 월별 켄터키주 일반 기금 세수 추이



주정부 위원회 보고서(A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report)에 따르면 상기 <표 7>에서 보듯이 2020년도 중국에서 발생한 COVID-19 영향으로 켄터키주의 연말 일반 기금 조세수입은 연초에 비해 대체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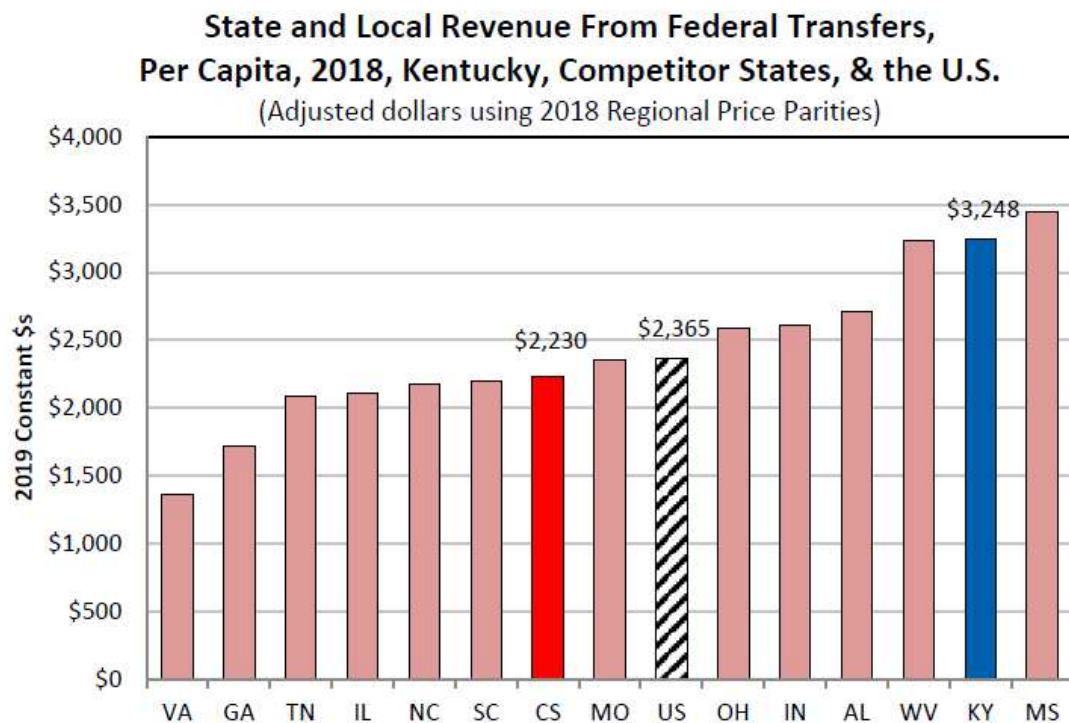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화폐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기금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4월 이후 조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와 비교시 약 7% 정도의 재정수입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켄터키주 의존수입과 자주재원 규모

아래 <표 8>에 따르면 켄터키주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주중 하나로서 연방정부 이전수입인 전입금 비중은 \$3,248(27.3%)로서 미국평균 \$2,365(약 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인접 경쟁주 \$2,230(18.8%)보다도 의존수입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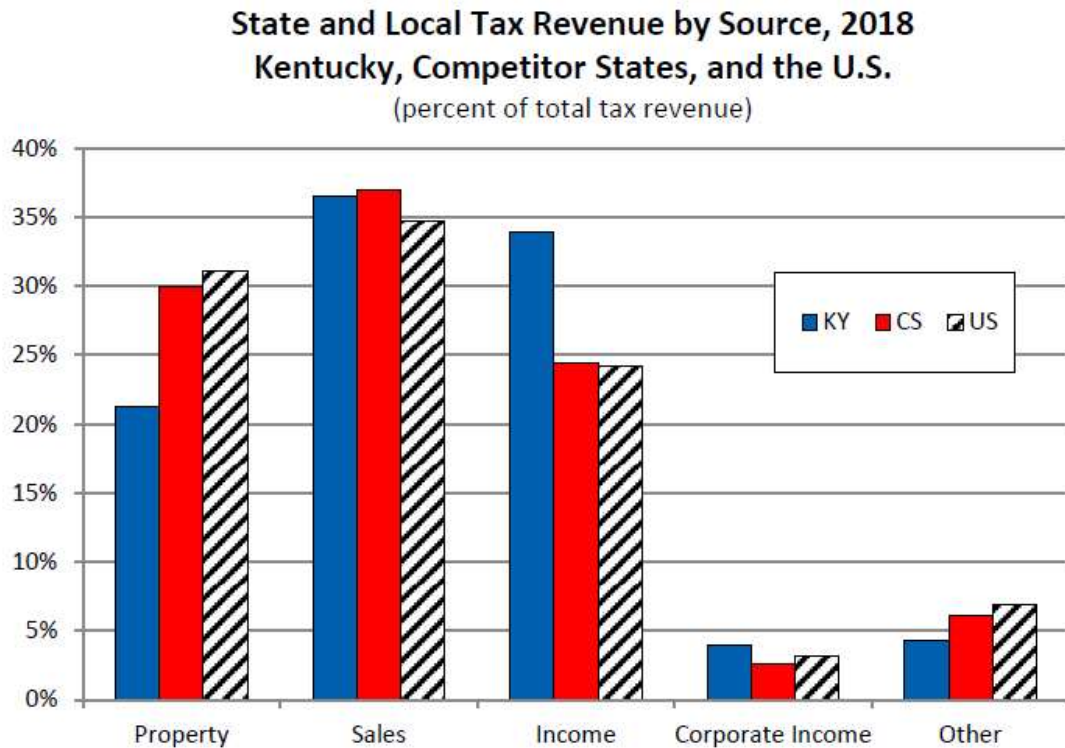
이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건강보조금 등 사회적보장기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연방정부 전입금



Source: U.S. Census Bureau, 2018 Annual Survey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표 9> 세목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 규모



Source: U.S. Census Bureau, 2018 Annual Survey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표 9>에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조세수입의 경우 켄터키주는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비중이 큰 관계로 미국 평균(32%), 인접 경쟁주(30%) 보다 재산세(Property Tax) 비중이 낮은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매세(Sales) 비중은 미국 평균(34.5%)보다 높고, 인접 경쟁주(37.5%)와 비슷한 37.0% 수준으로 파악되며, 개인소득세 비중도 미국평균(23.8%) 또는 인접 경쟁주(24.0%)보다 훨씬 높은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에 비해 판매세율과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켄터키주 재정지출 및 부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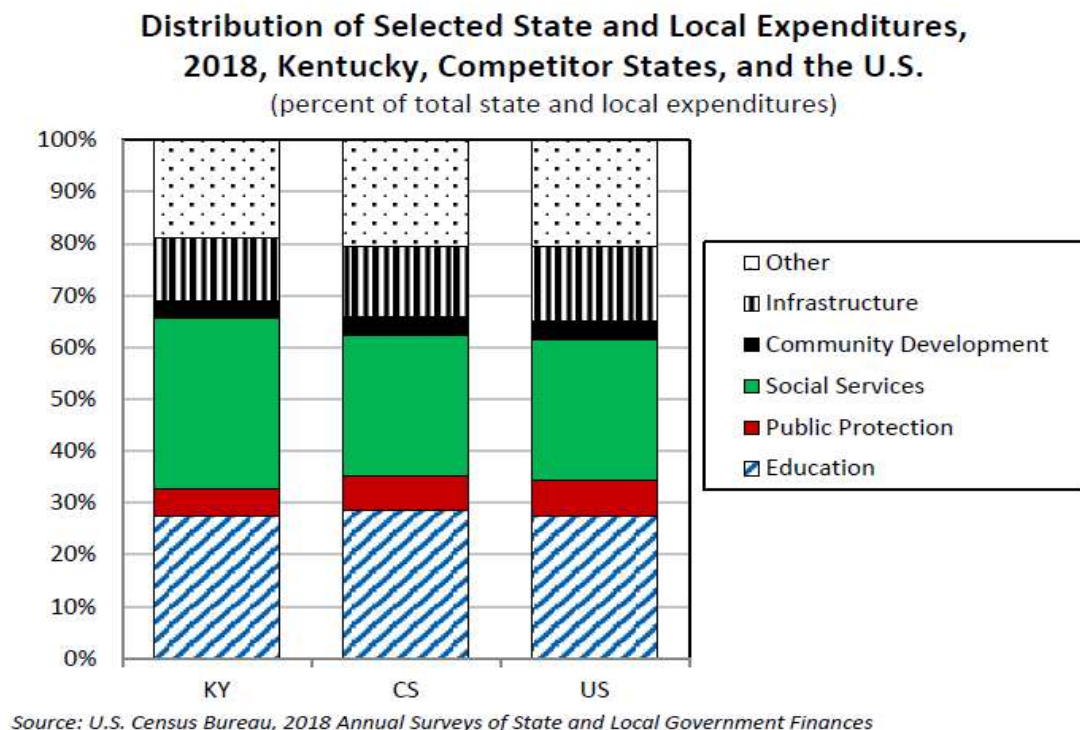
2-1. 켄터키주 재정지출 현황

<표 10>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공복지(public welfare),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의료(Medicaid) 분야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 비용이 인접 경쟁주나 미국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항·항만 건설, 수리 등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비용과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비용, 경찰, 소방, 교도소 운영 등 사회적 안전망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방호(Public Protection)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주택, 공원 등 자치단체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비용은 다른 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항목별 재정지출 현황



2-2.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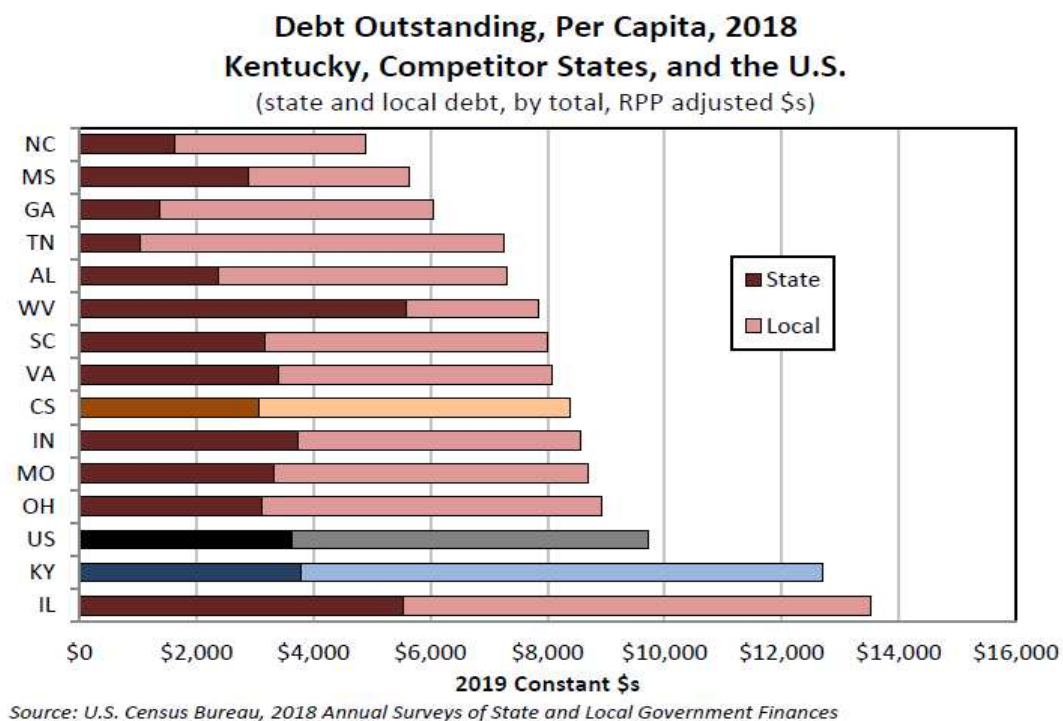
하단의 <표 11>를 보면 주정부의 부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WV)와 일리노이주(IL)이며, 켄터키 주정부의 부채비율은 웨스트 버지니아와 일리노이주에 비하면 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접 경쟁주(CS)와 미국평균(US) 수준과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카운티(County)의 부채비율은 일리노이주에 속한 지방정부보다 높아 여타 주중에서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도표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공채발행 규모가 큰 것을 보여준다.

<표 11> 주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



제4장 켄터키주 인문자연환경과 사회·경제 통계분석

제1절 켄터키주 인문·자연환경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점령지로서 루이빌(Louisville), 프랭크포트(Frankfort) 등 곳곳에 프랑스와 관련된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는 켄터키 라루 카운티 출신 아브라함 링컨이 북부 연방 대통령이었으며, 켄터키 페어뷰 출신 정치가인 제퍼슨 피니스 데이비스가 남부 연맹 대통령을 지냄으로써 켄터키주 출신이 남북 연맹의 수장이었다.

켄터키주 주정부 청사는 인구 약 3만의 프랭크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켄터키주의 입법, 사법, 행정업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랭크포트는 루이빌, 렉싱턴과 함께 옥수수를 이용한 위스키 버번 산지로 유명하며, 켄터키에서 생산되는 위스키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켄터키주의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 크기와 비슷하며,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남부는 애플래치아 산맥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발전이 더딘 곳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컴벌랜드 폭포, 내츄럴브릿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제조업으로는 토요타공장과 포드공장이 렉싱턴 인근인 조지아타운과 루이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와 중부,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지리적 잇점을 살려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는 동쪽의 대서양과 남쪽의 멕시코만 도달까지 자동차로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강수량이 풍부하여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조량도 풍부하여 농사짓기에 유리하여 농업비중이 인접 경쟁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반면 비가 자주 내림에도 대양과 멀리떨어져 있어 여름에는 습하지 않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관광자원으로는 미국 남부의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별칭을 가진 컴벌랜드 폭포 (Cumberland Falls)가 있고, 주된 토양이 석회암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긴 석회암동굴로서 유명한 매머드 케이브 국립공원(Mammoth Cave National Park)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회암 천연구조물인 내추럴 브릿지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마를 대중화시켜 세계에 전파한 경마 종주지로서 우리나라 과천과 같은 경마장이 루이빌과 렉싱턴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경마 애호가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링컨기념관보다 10여년 앞서 지어진 하젠빌 (Hodgenville)에 링컨 생가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요리법을 최초로 선보인 Harland Sanders Cafe가 코빈(Corbin)에 위치하고 있으며, 루이빌에 KFC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제2절 켄터키주 경제·사회통계

1. 경제 통계

1-1. 빈곤율(Pover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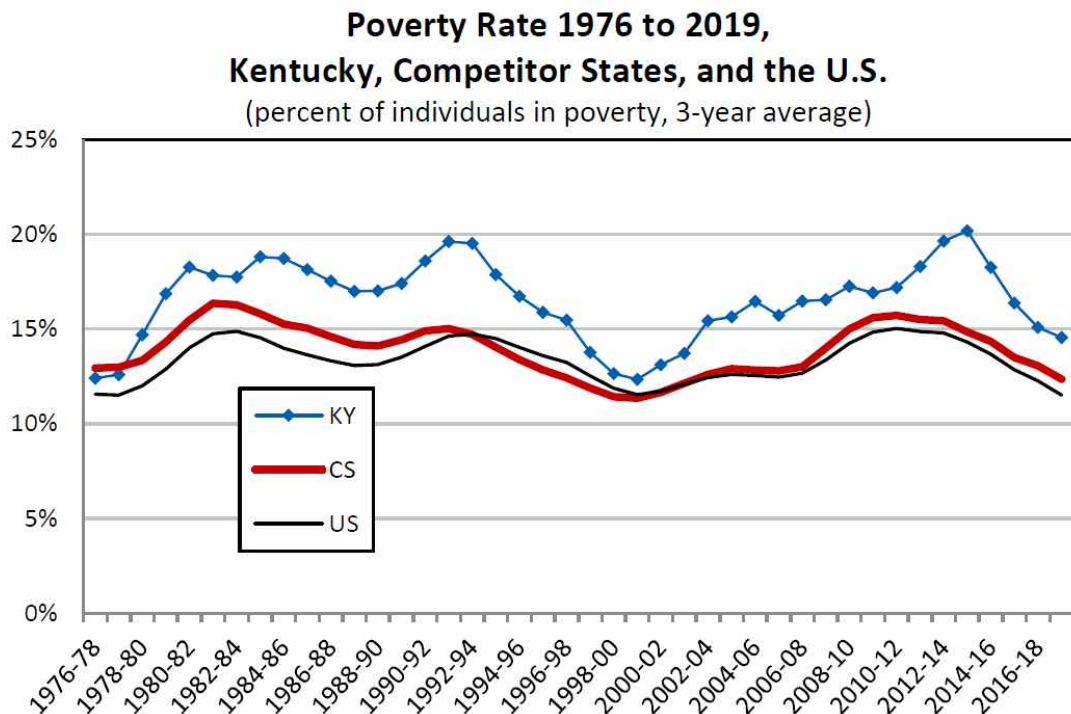
<표 12>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켄터키주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미국평균 12.3%(US), 인접 경쟁주 평균 12.9% (Competitor States)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많지 않고,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경기최퇴기에 빈곤율이 증가하다가 경제회복기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켄터키주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다른 주에 비해 그래프 변동성이 커 켄터키주의 경기민감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경제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12> 빈곤율 그래프 추이



Source: Author's analysis of IPUMS-CPS data, Sarah Flood, Miriam King, Renae Rodgers, Steven Ruggles, and J. Robert Warren.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Current Population Survey: Version 6.0 [ASEC various years]. Minneapolis, MN: IPUMS, 2020. <https://doi.org/10.18128/D030.V65.0>

1-2. 고용율(Employment-Population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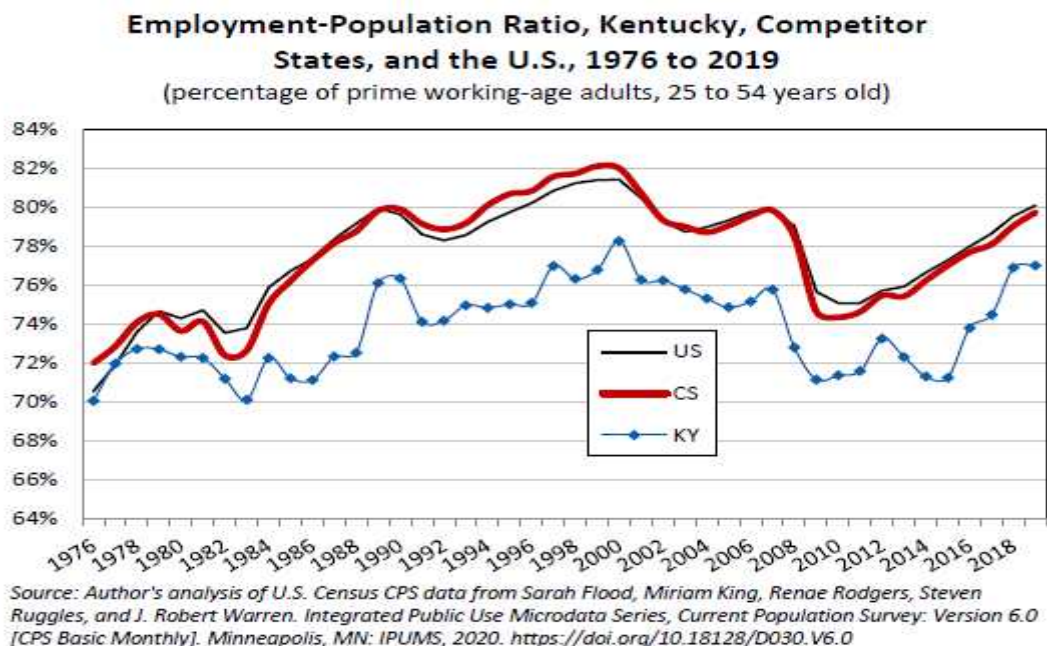
<표 13>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에는 켄터키주의 고용율은 다른 주와 비슷한 70% 초반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 기준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면서 켄터키주가 가장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율은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전국에 고르게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까지 경제

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미상환에 따른 금융위기 촉발 후 고용율이 크게 하락하여 1980년대 초반수준까지 떨어진 이후 2010년도부터 점차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도 코로나 발발 이후 고용율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13> 고용율 추이



1-3. 중산층 가계소득(Median Househol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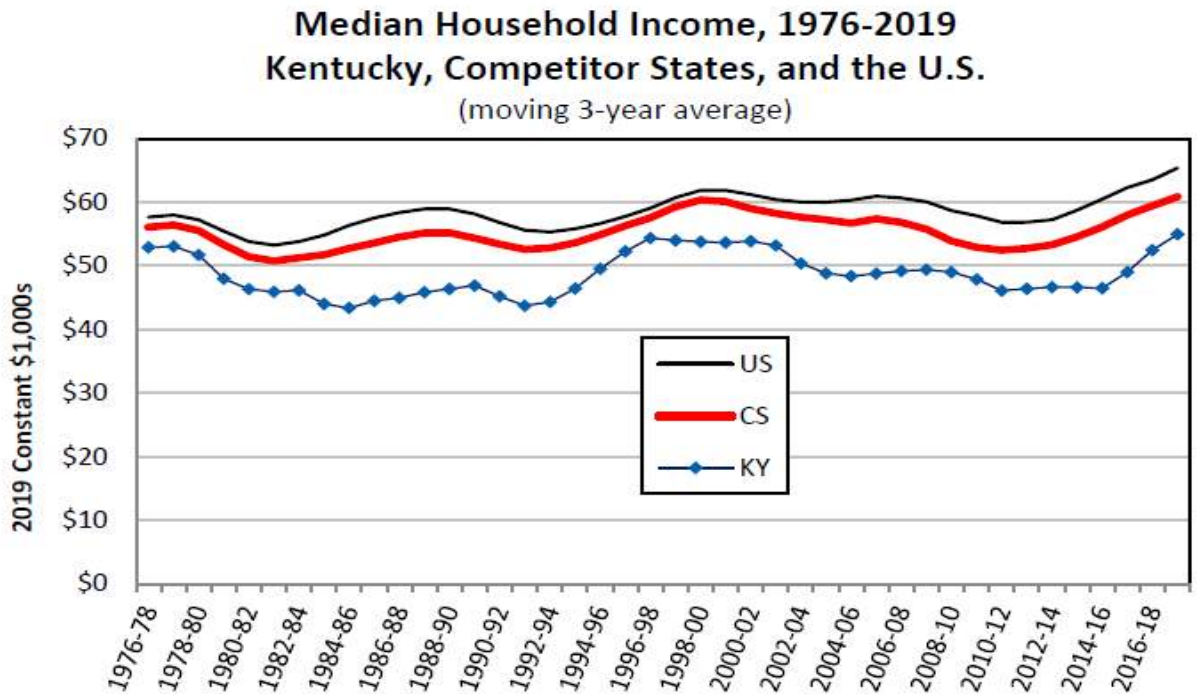
하단의 <표 14>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켄터키주의 중산층 연간 가계소득은 약 \$55천불로 미국 평균 중산층 가계소득의 84% 수준이다.

미국 평균 중산층 가계소득은 \$65천불이며, 인접 경쟁주의 중산층 가계소득도 \$60천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평균과 인접 경쟁주에 비하여 켄터키주의 중산층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로

는 4차 산업 등 새로운 동력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표 14> 중산층 가계소득 추이



Source: Author's analysis of IPUMS-CPS data, courtesy of Sarah Flood, Miriam King, Renae Rodgers, Steven Ruggles, and J. Robert Warren.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Current Population Survey: Version 6.0 [dataset]. Minneapolis, MN: IPUMS, 2020. <https://doi.org/10.18128/D030.V65.0>

1-4. 경제활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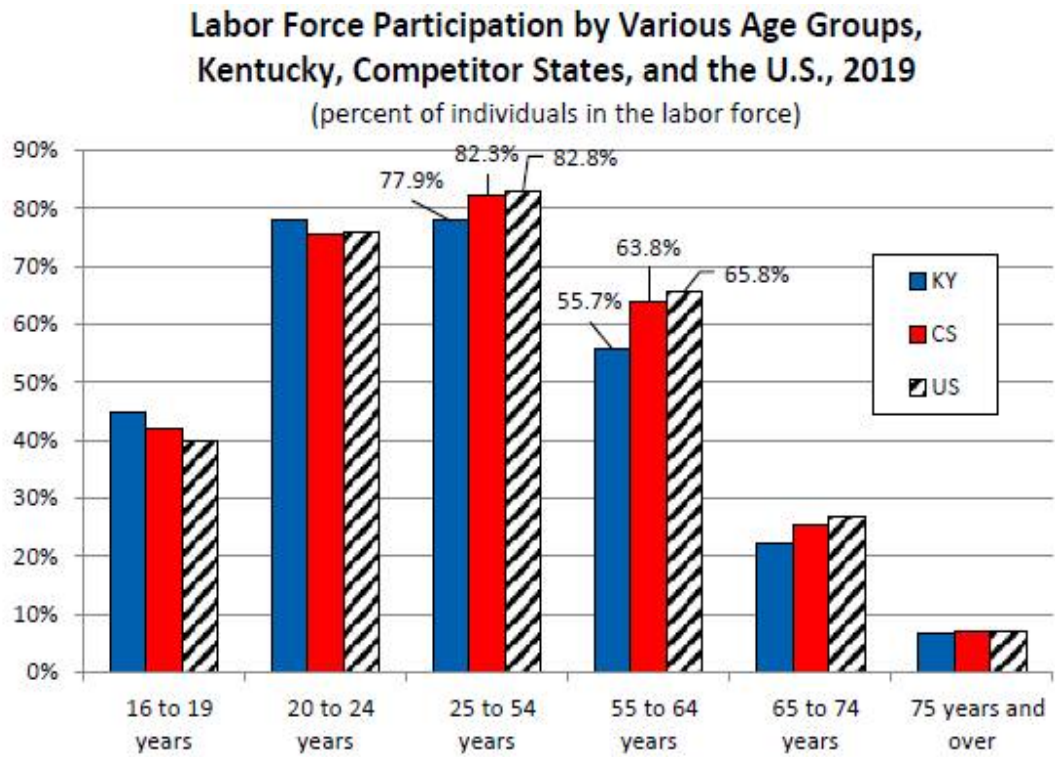
<표 15>에 따르면 미국 전체적으로 주된 경제활동인구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0대 중반의 40% 이상이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의 경우 특히 10대 중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국 평균 또는 인접 경쟁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고 경제적 빈곤층이 많아 대학을 포기하고 이른 나이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20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인구는 다른 주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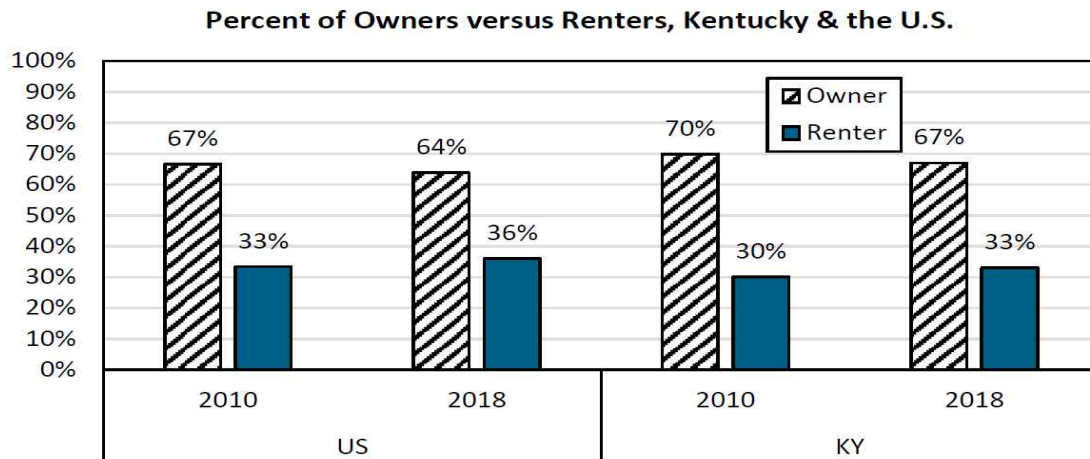
Source: 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1-Year Estimate

1-5. 주택소유 현황

<표 16>를 보면 켄터키주의 주택소유 비율은 2010년 기준 70%에서 67%로 감소하였으나, 미국 평균 주택소유 비율 6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야기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미상환 금액이 증가하면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소유비율이 감소하고 임차인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6> 미국 주택소유비율 추이



Source: U.S. Census Bureau. (2010,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 5 year estimates (Table DP04). Retrieved from <https://data.census.gov/cedsci/>

참고로 아래 <표 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소유비율은 전국 평균 58%로 미국 평균 67%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도의 경우 평균 주택소유비율은 68.8%로서 광역시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소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7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남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주택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미국과도 비교시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우리나라 주택소유비율 추이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자가점유 가구비율

1-6. 켄터키주 에너지 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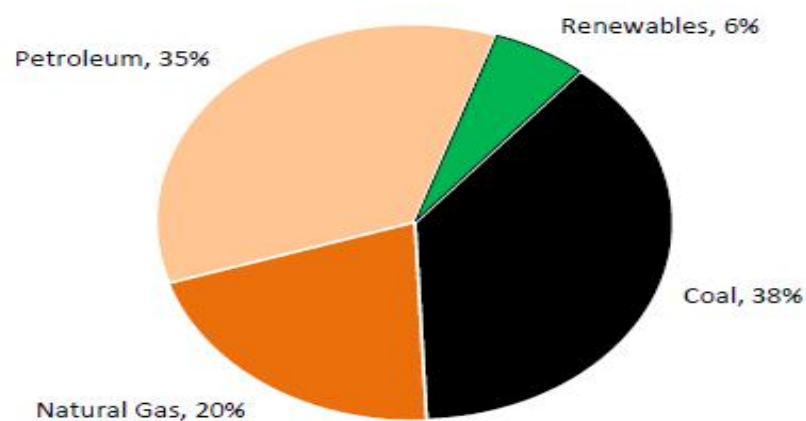
<표 18>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경우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석탄이 주된 에너지원(활용도 : 38%)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휘발유가 그 다음 순위를 갖고 있다.

<표 19>에서 연방정부에서는 환경규약(federal environmental regulations)을 개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발전소에서 석탄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화력발전 시 석탄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켄터키주에서도 노후된 석탄발전기를 새로이 교체하고, 천연가스 사용량을 점차 늘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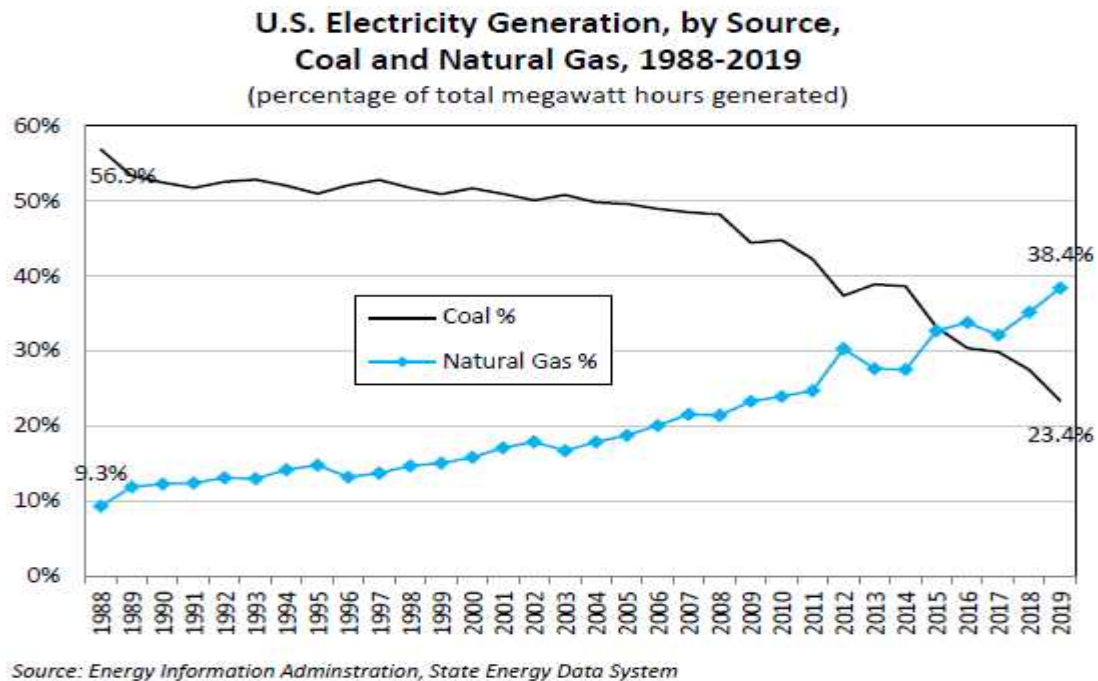
<표 18> 켄터키주 에너지 소비 추이

Kentucky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2018
(consumption by fuel type)



Sourc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tate Energy Data 2018, Consumption

<표 19> 미국 화력발전 에너지원(석탄·천연가스) 변동추이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석탄 비중은 미국의 23.4%에 비해 한참 높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사회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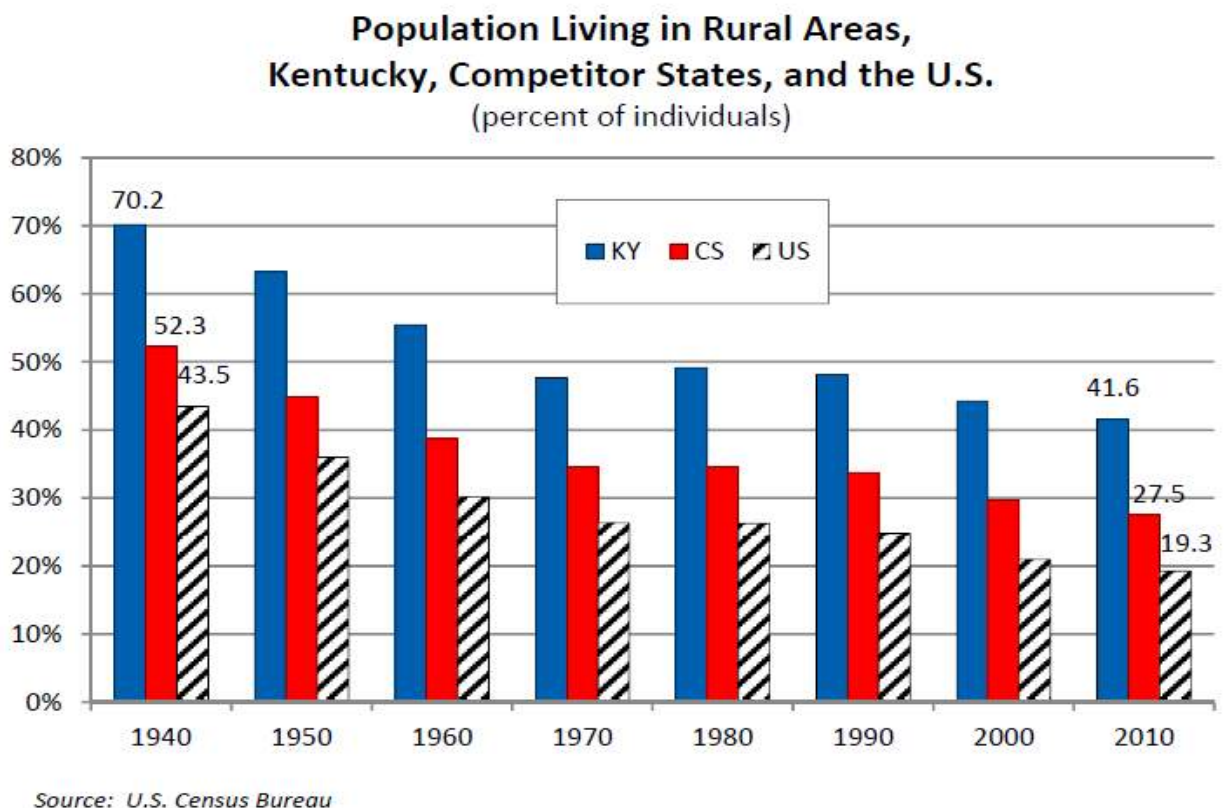
2-1. 농촌인구 비율(Rural Population)

<표 20>을 살펴보면 미국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켄터키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농업거주 인구가 다른 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경우 미국 평균 농촌거주자는 43.5% 수준이었으나, 켄터키주의 경우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도 농촌 거주 인구가 41.6%에 달하고 있어 인접 경쟁주나 미국 평균에 비하여 농촌거주인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는 농촌 거주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 중 많은 수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 농촌거주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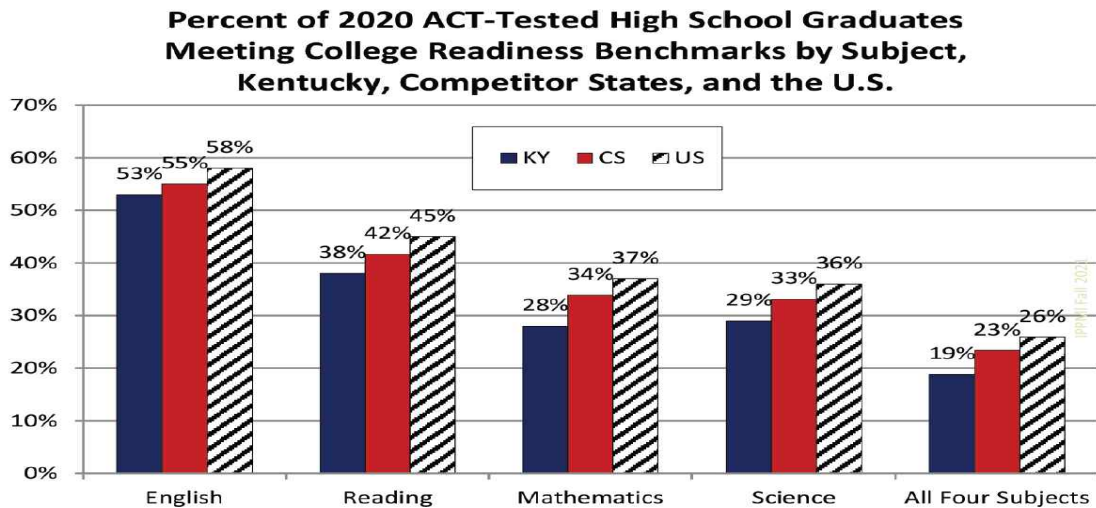
2-2.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표 21>에 따르면 2020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학 학업성취도 검사결과 켄터키주의 학생들의 영어 작문, 읽기, 수학, 과학 분야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인접 경쟁주 또는 미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산업 인구비중이 높은 켄터키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학업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며, 경제적 빈곤율이 다른 주보다 높아 학업보다는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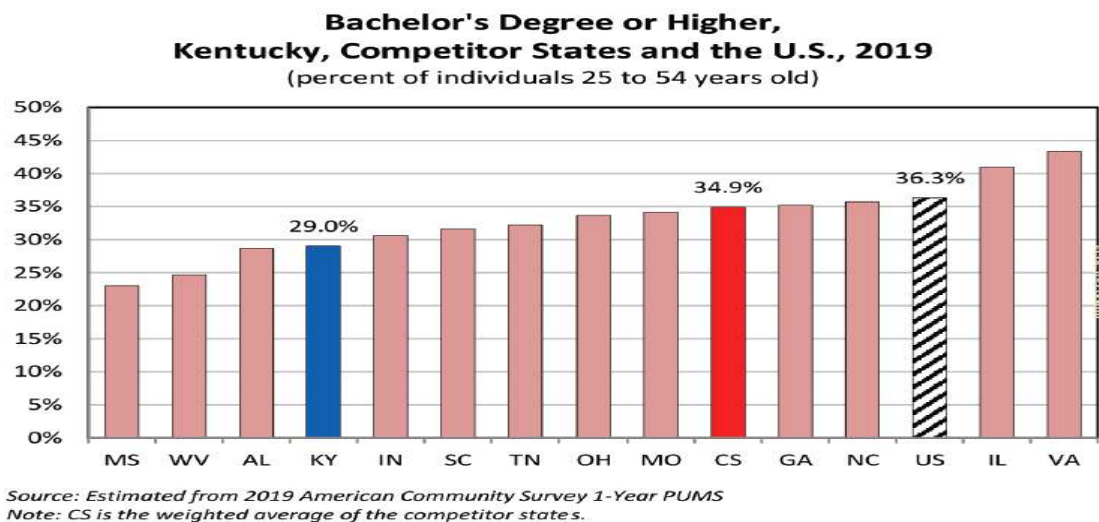
업전선에 뛰어드는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1> 고등학교 졸업생 학위성취도 수준



이는 <표 22>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낮아 학사 학위 이상을 받은 고학력자의 비중이 일부 미시시피주(MS)와 웨스트 버지니아주(WV)를 제외하고는 미국 평균(36.3%)이나 인접 경쟁주(34.9%)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2> 대학교 학사 이상 취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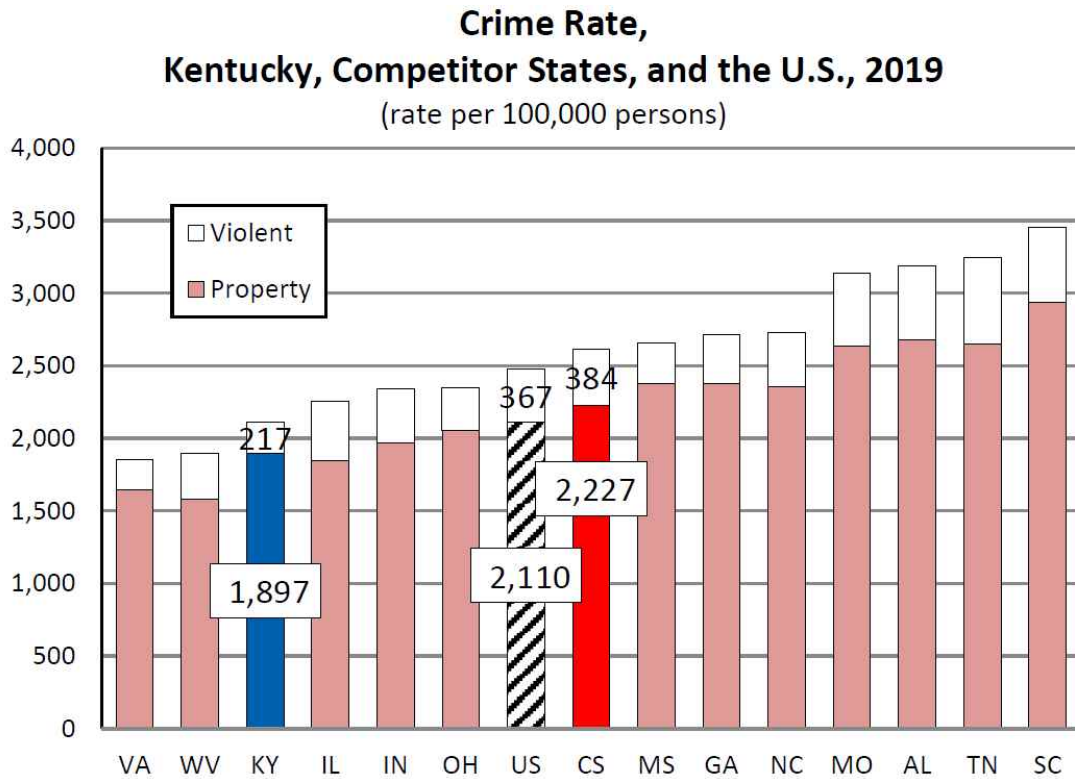


2-3. 범죄율(Crime Rate)

2019년 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폭력 범죄율(Violent Crime Rate)은 인구 100,000명당 217건으로 버지니아주(VA)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평균(367건)과 인접 경쟁주(384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율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범죄율 현황



Sourc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9 Crime in the United States

재산범죄(Property Crime Rate) 건수 역시 버지니아주(VA)와 웨스트버지니아(WA)를 제외하고, 켄터키주의 절도, 손괴 등 재산범죄 관련 건수는 1,897명으로 인접 경쟁주(2,227건)나 미국 평균(2,110건)보다 낮아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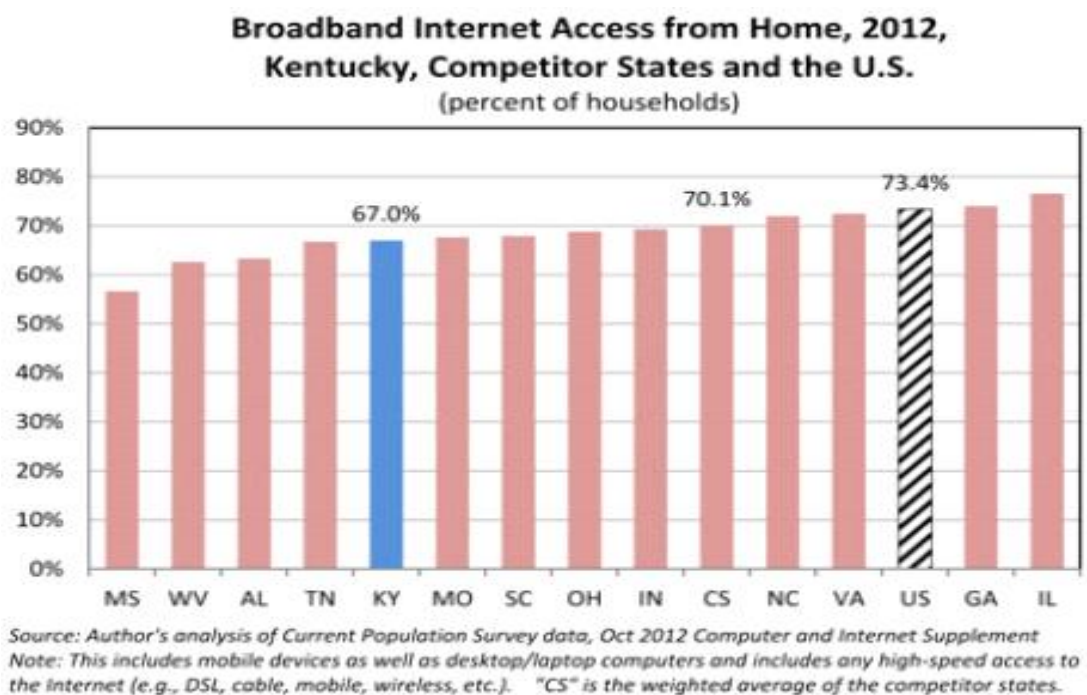
다.

2-4. 고속 인터넷 사용율

켄터키주의 정보화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망 이용 가구는 67.1% 수준으로 70%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인접 경쟁주(70.1%)와 미국평균(73.4%)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켄터키주 주민의 인터넷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역시 인구의 고령화가 한 요인일 수 있으며, 또한 도시보다 농촌지역 산재로 인터넷 망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4> 광대역 인터넷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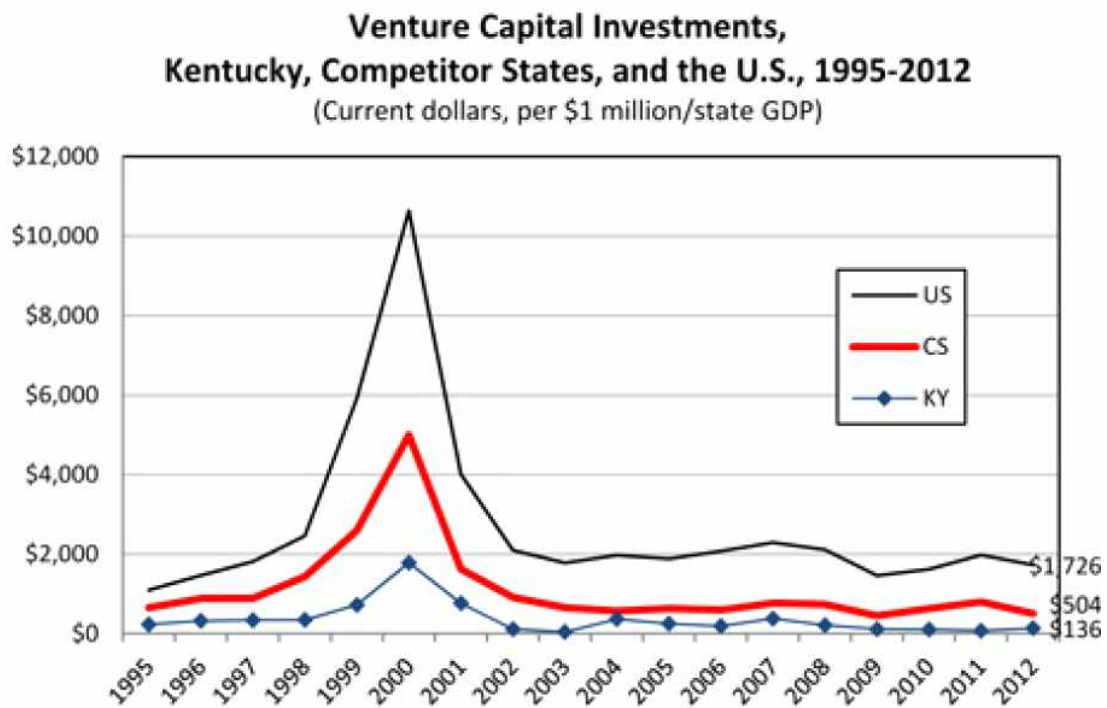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인터넷 이용율은 약 92%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2-5. 벤처투자 현황

미국의 경우 1998년도부터 벤처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투자액이 급감하여 1995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주의 경우 벤처투자액이 가장 정점을 찍은 2000년에도 인접 경쟁주(CS)의 \$4,500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2,000 정도 밖에 투자되지 않았고, 이는 미국 평균 벤처투자액 \$12,000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아 벤처투자열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켄터키주 벤처투자 추이



Source: PricewaterhouseCoopers and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제5장 기타 참고 정책

제1절 켄터키주의 최근 외국계 제조업 유치 실적

켄터키주의 경우 산업구조 및 재정상황 부문에서 우리도와 여러 분야에서 비슷하다.

여전히 농업비중이 산업부문에서 높고, 빠른 속도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유치를 위해 최적의 공장 입지제공, 우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 조지아타운에 위치한 미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도요타 측에서 추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합작을 통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 인근에 약 \$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5,000개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제2절 켄터키주와 인접 조지아주의 코로나 대응 정책

코로나 대응정책과 관련해서는 켄터키주의 경우 2차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2021년 6월부터 마트, 식당 등 상업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유도하였고, 켄터키 대학의 경우 2차 접종을 마친 교수진과 스태프와 학생에 대해 감염의심자와 접촉 시에도 PCR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PCR 검사의 경우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를 타고 검사하는 드라이브 쓰루(Drive Through)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에는 별도의 물품하역장(CurbSide Pickup)을 두어 구매자가 구입한 물품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 건물 내 출입문을 발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열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장실 시설(물비누, 화장지)의 경우 동작감시센서인 자동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정책과 관련하여 켄터키주에서 남쪽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테네시주를 지나 조지아주가 나온다.

조지아주의 경우 상업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시 국가나 주정부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여 코로나 감염 책임을 개인이 지도록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상업시설 출입구에 부착하여 공지함으로써 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제3절 켄터키주내에서 일본과 중국의 대외활동

미국 내의 지방 유력가와 학생들에게 일본과 중국을 널리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외국의 비영리기관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켄터키 주정부가 있는 프랭크포트에는 일본과 켄터키주의 문화, 사업 교류기구인 미일교류협의회(Japan/America Society of Kentucky)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의 비영리단체인 미일교류협의회가 켄터키주의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일본 문화를 전파하고, 상호교류하는 장으로 삼아 운영하는 곳이다.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미국인에게 어학강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기관으로 켄터키대학(University of Kentucky)에 공자학원을 개설하여 중국문화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 이용하였으나,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후 대학에서는 2020년도에 이를 폐쇄하였다.

제6장 맺는말

여러 분야에서 우리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미국 켄터키주의 정책 및 통계를 통해 우리도와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나뉠대로 찾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더욱이 우리도의 경우 켄터키대학에서 첫 실시한 교육연수이었기에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나뉠 노력하였으나,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인턴쉽 경험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타 시도(대구 3, 광주 2, 경기 2, 강원 4명)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해외에서 직원들의 장기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늦었지만 우리도도 이런 연수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 바람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켄터키 대학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과정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연수생 입장에서는 가장 물가가 싼 켄터키 주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도에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이 위치하고 있기에 아래의 나만의 엉뚱한 상상력을 소개하며 마치고자 한다.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하이오주 데이턴(Dayton)에는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실험을 해서 성공했던 장소가 있다.

이를 기념하여 미국정부에서는 이곳에 국립 미공군박물관 (National Museum of the US Air Force)을 짓고, 미국에서 개발한 각종 비행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1901년도 라이트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부터 최신 기종인 F-22랩터 등 다양한 기종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전시물중 나의 관심을 끈 것은 1900년 초중반 제작된 프로펠러기였다.

그 기종 옆에 각종 경비행기의 엔진을 함께 전시해놓았는데 그건 마치 트럭이나 승용자동차 엔진을 비행기에 부착하여 운영하였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비행기에 장착한 것처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전주에 있다면 그 곳을 소개하여 방문을 권유해 보고 싶다.

이를 계기로 향후 현대자동차 엔진을 장착한 경항공 프로펠러기를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연구소가 우리도에 위치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시제품인 경항공기가 우리도 창공을 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다.